

# 쉽지만 않은

## 신입회원 자격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부사장 김 윤

일년에 두 번씩 신입회원 심사를 한다. 몇 번 참석해 보았지만 쉽지만 않은 일이다. 입회를 추천한 모든 회원들의 희망을 다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심경을 회원 모두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협회를 아껴주고 협회행사에 후원을 마다 않고 지원해 주는 회사에 속해 있는 분들을 심사할 때는 아주 곤욕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그 회사 사장일 때는 더욱 그렇다.

또 다른 예는 회장이나 전임회장 또는 자문위원께서 추천한 경우이다. 당연히 입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천하셨을 텐데, 예외를 만들 수도 없고 하니 심사위원들 입장이 난처해 진다.

심사에서 탈락된 이유를 대라며 전화로 항의해 올 경우에는 딱 뭐라고 말해 줄 수 없어 안타깝다. 하지만 추천한 사람은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탈락된 것이 마치 자기 힘이 딸리거나 영향력이 적은 것처럼 반영되어서 인지 막무가내

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협회 회원자격이야 협회정관에 나와있는 대로 정보처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정회원이 된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까다롭지 않은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격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심사해 온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을 우선은 지키면서 조금씩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격조건을 조정해 오고 있다.

자격조건 중에서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윤리이다. 아무래도 협회가 창립될 당시부터 윤리문제를 강조해 왔고 신입회원 입회식 때마다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깨끗하지 못하면 회원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다음으로는 경력이다. 전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여야 했다. 비록 정관에는 10년이지만 너무 젊은 사람들이 협회원이 되어 전문가 운운하는 것이 남 보기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조찬회에서 모 연사가 기술이 빨리 변하는데 15년이면 전문가 경지를 벗어난 구전문가 또는 현 기술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 집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농담 반 진담 반 건의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10년 이상으로 자격을 좀 완화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S/W개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은 꽤

까다롭게 검토한다. 개발경험 없이 전문가로 부르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같은 회사에 종사하는 회원이 너무 많지 않게 적정하게 회원 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회원 수도 연간 10% 정도 증가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제일 까다로운 조건은 심사위원 중에서 특정인의 입회에 하자가 있다고 말하면 그 회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그 결격사유를 논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특정인에 대한 험담이 나오기 쉽고 그렇게 되면 자칫 인격적인 면까지 다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회원은 5년 동안 심사에서 탈락되다가 회원자격을 얻은 회원도 있다고 한다. 주로 영업분야에만 종사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로 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다가 영업분야에서도 근 20년 가까이 근무하게 되었고 이쯤 되면 전문가로 칭하여도 손색이 없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증론에 따라 회원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서당개도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영업분야에만 계속 있었어도 S/W모르고 어떻게 영업을 했겠느냐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요즈음엔 정보처리전문가라고 딱 찝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처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20세기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처리란 용어 다음에 나타난 용어가 IT(정보기술)인데 IT는 정보처리

뿐만 아니라 H/W, 네트워크, 인터넷 등 세분되는 분야를 총칭하고 있고 심지어는 통신분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환기분야와 같은 순수 통신전문가를 협회 회원으로 추천한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물론 신지식시대를 이끌어 갈 사람으로 업계에서 동고동락 할 사람들을 회원으로 많이 영입해야 되지만 문호를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다.

다만 협회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처리 기술발전에 기여하면서 회원 상호간에 공동이익을 추구하자는 목적을 변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 사업을 위한 협회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부합되는 좋은 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영입 되어 전문가정신을 강조하면서 발전되어가야 한다.